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종식 완도군수

"생물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건설에 진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올해 경제 활성화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김군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특산물 육성, 행복한 복지 완도와 인재 양성, 특색 있는 문화 관광산업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서 교통망 구축 집중

또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3호선 기간국도 지정, 국도 27호선 연장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올해를 완도 경제발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편리한 도서 교통망 구축도 김 군수의 역점 시책이다. 올해 확보된 10억 원의 예산으로 신지~고금간 연도교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소안~노화간 연도교 사업비 확보에 나선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고금~마량간 연륙교, 노화~보길간 연도교의 조기 준공으로 도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전국 제일의 지역 특산품 육성과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군수는 신지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남해안 제일의 관광지

청정해역 특산품 개발

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주차장 설치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민자 80억 원으로 해양테마 펜션단지를 조성, 남해안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역시 김군수가 지대한 관심을 쏟는 분야다. 우선 농·어촌 지역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이다.

장보고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혜택을 확대하며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명문학교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

'노인복지수발보험'과 '노인수발급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비롯해 각종 출산 장려 시책 추진, 85세 이상 노인 건강수당지급,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건립 등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문화 관광 사업과 인

노화 건강테마촌 건립

구 유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다도해 일출공원과 노화 건강테마촌, 세계 희귀 새 공원, 세계해양영웅공원 조성 등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장보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희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강진 하멜 전시관 문연다

옛 병영초등 부지에 건립 올 상반기중 개관

체험장 등 갖춰 역사·교육전시관 역할 기대

'하멜(Hamel) 전시관'이 올 상반기에 문을 연다. 〈조감도〉

하멜전시관은 국비지원사업비 23억원을 포함해 총 31억원이 투입돼 하멜 일행이 타고 왔던 스페르베르호를 형상화하는 등 다양한 시설로 꾸며진다.

강진군 병영면 구 병영초등학교 앞 부지에 조성될 하멜전시관은 총면적 4천529㎡에 체험의 장, 교류의 장 등을 갖춘 건평 396㎡ 규모로 세워진다.

전시관에는 하멜동상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 10여점과 하멜시대에 사용됐던 네덜란드 생활용품 30여점 등이 전시된다.

또 전시관 주변 1천여평에는 억새풀 공원과 느티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을 심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된다.

한편 하멜일행 30여명은 1653년 3월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 제주도에 표류, 전라도 육군의 총지휘부가 있던 강진 병영성으로 이송돼 7년여 기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하멜 일행이 생활했던 병영성 주변에는 하멜일행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강진 병영마을 돌담길(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 등 유적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탐진강 친환경휴식공간 탈바꿈

장흥읍내를 통과하는 탐진강이 친환경 군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장흥 탐진강 정화사업은 현재 수질정화 생태습지원 2만㎡를 비롯해 자연석호안 1.83㎞가 말끔히 조성됐다. 생태 습지원에는 연꽃과 꽃창포, 수련 등의 수생식물이 식재됐으며 탐방로도 설치됐다. 군은 올해 징검여울 2곳 등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고려청자 인터넷서 제작

郡 '사이버체험관' 운영

천년비색 강진 고려청자를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체험·제작해 볼 수 있는 '사이버 청자체험관'이 오는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지난해 9월 군비와 센터연구비 등 총 1억원을 투입, 동신대학교 디지털연구센터와 계약을 체결했다.

'강진청자 사이버체험관'은 4개 분야 11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돼 ▲청자자료박물관 ▲청자재현관 ▲청자체험관 ▲청자가마 ▲청자관련 정보 등이 3차원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사이버 청자체험관이 완료되면 강진 청자도요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함평군 브랜드 슬로건

'에코 함평' 확정

함평군이 친환경, 생태체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브랜드 슬로건을 '에코 함평(ECO Hampyeong)'으로 확정했다.

ECO는 Ecology(생태, 자연환경)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E(Environment)는 환경, C(Culture & Tourism)는 문화·관광, O(Optimal County)는 최상의 살기좋은 지역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나비의 비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한국 춘란의 메카로서의 이미지와 군민의 기상을 나타냈으며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시, 우수고교 2곳 집중지원

대학 진학률 등 분석 3월 초 최종 선정

나주시가 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할 2곳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나주시는 23일 "관내 12개 고교중 일반계 2개교를 선정, 예산지원 등 중심고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 유관기관과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 8명으로 '중심고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월초까지 해당고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학교 비전과 발전 계획, 운영계획서, 학습지원 능력, 연도별 대학 진학률 등을 집중 분석해 중심 고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3년간 지원된다.

시는 3년뒤 재평가를 거쳐 실적 등을 공개하고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심학교 육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금까지의 '나눠먹기식' 지원에서 탈피, 집중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새의자

"고품질 전력 안정적 공급 최선"

안 창 휘 한전 목포지점장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안창휘(56) 한국전력 목포지점장은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사업소로 거듭나기 위해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안 지점장은 지난 1970년 한전에 입사, 완도와 광양, 해남 지점장 등을 지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